

Robert Vannoy, 성경적 예언의 기초, 강의 22

아모스 9:11-15

아모스 9:11-15 미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

우리는 책의 네 번째 부분인 “미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에 관한 아모스 9장 11-15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모스는 앞선 많은 심판 선언의 배경에 대한 희망의 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섹션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진정성 첫째, 진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이 부분은 아모스 자신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책에 첨부된 것입니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거는 암시된 역사적 배경이 아모스 시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론 구절에 나타난 상황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의 “무너진 오두막”을 복구하고 “그 틈”을 메우고 “그의 폐허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옛날과 같이” 재건하는 것입니다(11절). 즉, 에필로그에서는 관점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사야서의 저자 문제와 비슷해집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논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동일한 인수 라인이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저는 선지자가 자신이 예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우 간략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모스는 당신이 다메섹 너머 포로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의 건물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전사들은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2:4-5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한 아모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제하고 그 너머를 내다보지 못했을까요? 다시 말해, 그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닌 것 같고, 따라서 책의 이 마지막 부분의 진정성에 대해 어떤 질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아모스 9:11-15 해석에 관한 질문

그러나 나는 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신이 아모스 9:11-15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해석상의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11절과 12절을 포함하여 9장의 11절부터 15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에게는 여기에 두 갈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말한 것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또한 더 내부적으로는 아모스 9:11-15: 이 구절의 11절과 12절 해석과 13절과 15

절의 해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에 대해 말하는 단위입니까, 아니면 11과 12, 13과 15 사이에 어떤 종류의 단절이 있습니까? 11과 12를 13-15와 어떻게 연결합니까? 아모스 9:11-15 및

사도행전 15:12-19 JA Motyer는 아모스 9:11-15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이 많은 구절에서 호전적인 은유는 물론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회의 선교적 확장”이라는 그의 표현 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12-19절에서 신약이 승인한 해석이다.” 즉,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토론에서 아모스 9장을 인용할 때, 그는 아모스 9장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회의 선교적 확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많은 논문에서 나타나는 다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OT Allis는 *예언과 교회* 에서 아모스 9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Allis는 무천년주의자이며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도행전 15장의 올드 스코필드 노트에서 아모스 9장의 사용에 대해 언급한 진술을 주목하십시오 . ”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된 불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논쟁의 무천년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논쟁의 시대적 측면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은 JA Motyer와 OT Allis의 방식으로, 그리고 무천년 해석 학파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사용된 이 구절에서 도출된 결론은 교회에 대한 참조로서 다른 구약의 왕국 예언에 대한 유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아모스 9장 12절에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를 소유하고”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에돔의 남은 자를 소유한 것”을 “남은 사람들로 17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아모스 진술의 해석이라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채택된 에돔에 관한 진술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

천년적 관점 자 , 이 관점의 사람들에 의해 발전된 논쟁의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모스 9장 11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현 시대에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11절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중수하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여 세우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심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 때에 이루리라 Theodore Laetsch는 “ 그는 무너진 오두막을 일으키고 이전의 가장 높은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그것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회개를 외침으로써 그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개종한 이 사람들

중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열 지파의 많은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왕국을 가르는 틈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성취는 초림과 초기 복음서에 있는 교회의 설립을 위한 것입니다.

OT Allis는 예언 *과 교회*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재림 때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것 은 초림 이며 미래 의 다윗 왕국 을 언급 하지 않습니다 . “ 다윗과 솔로몬의 막강한 왕국인 다윗의 집은 천한 '초막' 수준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천사들에 의해 알려지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써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의 성육신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세우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분은 다윗이 이제까지 알고 있거나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주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능한 일이 성령을 통해 직접 행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을 그의 주권으로 그래서 11절은 그리스도의 초림, 다윗의 무너진 집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2절에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고 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를 소유하는 것은 “이방인의 개종” 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있는 아모스 구절의 인용문에서 “에돔을 소유하는 것” 대신에 “남은 사람들로 여호와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표현의 변화는 구약의 진술을 더 높은 수준의 의미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통해 아모스 구절을 의도적이고 영감을 받아 해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주님을 찾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러나 야고보가 70인역의 말을 인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13-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15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추숫군이 밭 가는 자에게, 파종하는 자가 포도 밟는 자에게 쫓기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든 언덕에서 흐를 것이다. 포로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 것이다.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해석적 전망에서 이방인의 초림과 회심은 12절에 있다. 13-15절은 일반적으로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 기독교 교회를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 Laetsch 192페이지에서 그가 13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새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일구는 쟁기질하는 사람이 거두는 사람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를 쟁기질하는 사람이 준비한 땅에 열심히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도를 밟는 사람은 미래의 농작물을 위해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사람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이단을 찾아내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거두고 거두어들이고 영원히 계속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종자들을 교회로 데려옴으로써 단을 즐겁게 모으는 일도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모스 구절과 일관되게 이루어지지만 15절은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즉, 15절은 “신자의 안전인 ’ 이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고 말하는 요한복음 10:27과 같은 신약의 예언에 대한 구약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유적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Anthony Hoekema는 그것들을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강조하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포로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황폐한 도시를 재건할 것이다.”

다른 구절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해석학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는 Anthony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를 참조하십시오 . 이것이 바로 이 특정 구절의 중요성과 신약성경에서 그 사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파의 해석자들은 여기에서 해석의 원칙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Hoekema가 말한 내용입니다. “ 하지만 이런 종류의 예언은 *비유적으로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 성서는 이러한 유형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예를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18절의 아모스 9장 11-12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고된 대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먼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많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공의회를 주재하던 야고보는 이제 계속해서 ‘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합니다.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다시 건축하고 또 세우리니 이는 남은 자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이 여호와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5:14-18). 야고보는 여기서 아모스 9:11-12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심은 그의 심판에서 무너진 초막 곧 다윗의 장막을 일으킴에 관한 아모스의 예언(‘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리니...’)이 다음과 같이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구약 구절을 비유적으로, 비문자적으로 해석한 성경 자체의 분명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 비문자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의 다음 코멘트를 주목하십시오. “ 그와 같은 다른 예언들도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여기에 그런 종류의 해석에 대한 성경적 예가 있는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언급하는 다른 예언들과 함께 그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 9:11-15의 해석

1. 아모스 9:12

이제 이러한 해석적 질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모스 9장의 12절 2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11절 1절, 12절 2절, 13-15절 3절을 만들었습니다. 아모스 본문을 11절, 12절, 13-15절로 나누어 1, 2, 3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번 항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보세요. 12절이 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거기에서 나오는 신약성경 인용문, 둘째로 아모스서 12절의 해석 문제에 관해 당신이 내린

결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3-15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그 핵심은 12절에 있고 11절과 13-15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arash (탐색) LXX & DSS 또는 Yarash (소유) MT

그래서 먼저 12절을 보면 본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1953년 Allan MacRae의 "구약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있는 기사에서 이 Amos 9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목한 것인데, 사도행전의 표현이 70인역의 인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James가 Amos를 인용할 때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칠십인역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아모스 9장의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Allis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MacRae는 더 나아가 무천년주의 해석가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구약 예언을 더 높은 수준의 의미로 끌어올리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 이것을 한 것은 야고보가 아니라 70인역이라고 지적합니다. 확실히 칠십인역의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은 영감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70인역과 마소라 본문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MacRae는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에 70인역과 히브리어 본문이 일치했으며 둘다에서 동일한 문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대답이라고 제안합니다. 야고보가 공의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원본과 다른

인용문을 사용했다면 왜 누군가 “잠시만요. 구약의 부정확한 인용문은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평의회!” 이 제안을 특히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의 히브리어 문자 요드 (*yodh*) 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쉽게 혼동되는 daleth 는 칠십인역 에 일치하는 히브리어 원본 과 칠십인역 번역 이후에 히브리어 본문에 도입되었을 수 있는 두 개의 모음 문자를 추가합니다 . 즉,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 *yarash* (소유) 또는 *darash* (찾다)입니까? *yodh*가 *daleth* 로 변경된 경우 “seek”는 *yarash* (소유) 대신 *darash*를 전제로 합니다 . 70 인역의 번역자들 앞에 놓인 히브리어 본문인 *vorlage* 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신약성서가 아모스를 인용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MacRae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해 두루마리 4QFlor 1.12 중 하나가 성경 텍스트 중 하나가 아니라는 J. de Waard의 관찰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그것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본문의 선집이 있는 본문이며, 아모스 9:11-12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사도행전에 인용된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사해 두루마리의 4QFlor 1.12에는 Amos Masoretic 텍스트 번역이 아니라 이 구절의 사도행전 번역과 일치하는 히브리어 텍스트가 있습니다. De Waard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모스 인용문의 본문 형태는 마소라 본문과 70인역 과 다르지만 4QFlor의 것과 정확히 동일하다.” 70인역은 사도행전 17절이 아니라 16절에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야라쉬* (소유) 대신 *다라쉬* (찾다)가 있습니다. 현재 사해 두루마리에 그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안에 추가적인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의된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아모스의 예언은 이 쟁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야고보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들이 아모스 구절의 이 인용을 근거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의 중인 문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 사도행전 1:1-18로 돌아가 보십시오. 문제는 회심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그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 개종자가 되어야 하는가? 사도행전 15장 5-6절을 보면, “바리새파에 속한 신자 몇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행케 해야 하리라 하니”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이 질문을 고려합니다.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삼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야고보는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아모스 구절을 인용합니다. 누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14절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회심에 대한 베드로의 언급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을 펴십시오. 시몬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심으로 어떻게 관심을 보이셨는지를 묘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일어나 7절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술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서 이미 택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믿노라.” 그래서 야고보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여 관심을 보이신 일을 시몬이 말하였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9:12 사도행전 15장의 인용문 - 단순한 인용문이 반드시 성취 인용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인물로 돌아가서 b를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모스의 말이 이것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예언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한다고 말한 다음 아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아모스 구절 이 베드로가 묘사한 특정한 문제, 즉 이방인의 회심과 교회의 시작을

예언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쟁점이 된 요점이 이방인들이 회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구약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은 제기된 질문을 구결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회심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구절을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해석은 할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의회가 야고보의 조언을 채택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인용한 구절이 어떤 식으로든 할례 문제를 다루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천년설 해석은 이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실성의 문제는 이방인들이 회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예, 그들은 회심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구절이 종말론적 왕국과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의 성취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야고보가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등장에 대해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여 관심을 보이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소 어색한 발언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굵게 표시한 것처럼 '처음에'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왜 그는 그것을 '처음'에 넣었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요약합니다. 야고보 **는** 아모스의 인용문을 이방인의 회심과 연결시킬 때 (16a 절) “ **이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요 ... 아모스 9:11 의 히브리어 표현의 . 즉,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을 행하셨으니...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처음에”, “이 후에”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 이것은 아모스 9:11의 히브리어 표현을 분명히 수정한 것입니다. 아모스 9 장 11절의 히브리어 표현에는 “이 후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아모스 9 장 11절은 “그날에 내가 일으키리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그 날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를 인용할 때 “그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로 대체합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오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모스서에도 없고 칠십인역에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이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로 아모스 구절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시간적 표현을 대체했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James는 이 인용문을 보다 구체적인 시간대에 배치하여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인들을 일으키셨다가 그 후에 다시 오신다면 그것은 전반이 아니라 후반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아모스가 예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행 15:14b). 그가 “선지자들의 말이 이에 합하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묘사한 사건을 아모스가 구체적으로 예언했다고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모스가 그러한 백성이 이미 존재하게 될 때를 상상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따르면,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시작하셨다는 베드로와 바울이 기록한 사실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전체 구절을 읽으면 할례 문제와 구절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평의회 의원들에게 그 주장은 아주 분명해 보였다. 공의회의 쟁점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방인으로 남을 수 있는지 여부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아모스의 인용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존재할 상황에 대한 묘사로 이해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아모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이 있을 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면 그 예언은 할례 문제와 명확한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

결론: 아모스의 인용문을 교회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아모스에 대한 비유적 해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실 그는 단순히 사해에 의해 입증된 올바른 구약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후에 손상된 두루마리 원고. 둘째,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중심 질문과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인용문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될 특정한 때를 나타내기 위해 야고보가 “그 날에” 라는 아모스의 구절을 생략하고 “이 후에 내가 돌아오리라” 로 대체함으로써 인용문을 도입한 언어를 무시하고 있다. 즉, 야고보가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베드로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니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고 말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날에” 대신에 “이 후에” , “이 후에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한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17절에 보면 내 이름을 딴 이방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이 있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방인들이 거기 있으면 분명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9:11과 9:13-15에 대한 함의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만일 당신이 12절의 관점을 취한다면, 그것은 11절을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교회가 아니라 재림 때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왕국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하는 것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13-15절과 관련하여 13-15절을 교회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할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J. Barton Payne이 중재 위치를 취함을 알립니다. 그는 11절을 그리스도의 초림 때 다윗의 혈통의 부흥으로 본다. 그런 다음 그는 이방인을 이스라엘, 즉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아모스 9:12의 성취를 봅니다. 그는 사도행전 15:16의 “이 후에 내가 돌아오리라”라는 구절을 아모스 9:9-10의 유배와 보존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행전 문맥이 아니라 아모스 문맥에서 “그 날에”라는 아모스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지금 나에게 그것은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James가 표현을 수정한 것이 사도행전 문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와 이 “내가 돌아온 후에”는 사도행전의 문맥이지 아모스의 문맥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13-15로 무엇을합니까? 그는 13-15가 천년의 번영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Payne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그것과 관련된 이방인의 합병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천년 번영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필요한가요? 이 구절은 하나의 구절입니까?

아모스 9:13-15 무천년주의자인 Aalders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5:13-15

에서 교회에 대한 비유적 묘사로서 이방인 의 회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11-15에서 두 개의 개별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기간에 성취됩니다. 첫 번째(11-12절)는 다윗 왕조의 메시아 통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며 복음

전파로 이방인을 회심시키는 일에서 그 성취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13-15절)

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고한

귀환에서 성취됩니다. 즉,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대순으로 13-15

절은 11절과 12절보다 빠를 것입니다 . ” 나는 반대했지만 ” 다른 한편으로 1

3-15 절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단어의 명확한 의미에 완전히 반대하는 다양한

비 칠리아 주의적 해설자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부여하는

영적 혜택을 봅니다.” 다시 말해, 그는 13-15절에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해석학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거기 에는 문자 그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베는 사람, 쟁기질하는 사람, 포로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 이것도 저것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천년 또는 영적입니다. 우리는

두 예언을 분리하여 첫 번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그가 씌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는 13-15절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여 교회에 적용하는 정당성과 씌름하고 있다. 그것이 13-15의 언어에 정당성을 부여합니까? 그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천년왕국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려면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한 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하나는 통로의 흐름이 그 이전의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땅에 심으리라 하셨으나 포로 귀환 후에는 다시 뽑힐 것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Vannoy의 제안 제가 제안하는 접근 방식은 12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서 그 당시의 진술로서 우리를 재림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이 있으리니” 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복잡한 구절이며 많은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몇 가지 다른 관점에 대한 추가 논의일 뿐입니다.

Jared Kuipers 작성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 의 재연설